

인류세의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1세대 기후 활동가 '지대'의 생애사를 통한 기후학습 과정 연구 -

신혜정(서울대 교육학과)

1961 탄생 @경남 산청

서론

기후 대응의 논의에서 교육은 사람들의 변화 내지 친환경적 실천을 유도하는 기제로 빈번하게 소환된다. 그러나 답이 정해진 주류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기존 체제에 도전하기보다는 유지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 기후 무대응(climate inaction)에 주목하는 논의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혹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가? 어떻게 자기임을 끈질기게 유지하는가? 변화 또는 동질성의 지속적인 생성 – 우리가 불변이라고 이름 붙여온 – 을 일종의 학습이라고 본다면, 그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연구는 20여 년을 기후 대응 활동에 주력해온 시민단체 'G'의 상임이사 '지대'의 생애사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주목 및 천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학습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본론

1974 “전교 1등을
해보야겠다”
(14살)

'지대'의 집은 “되게 못 살았”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 간 날이 100일이 채 안됐다. 육성회비를 못 내니 학교에 가면 비가 새는 자리에 앉아야 했다. 학교 대신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주로 전파상 앞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다. 전환의 시점이 찾아온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거리를 걸던 그에게 한 남학생이 “야 이거지 같은 새끼야”라 외쳤다.** '지대'에게 그 말은 “완전히 어떤 밑바닥 생활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준” 유일한 말이었고, 그가 초등학교 졸업 무렵 '가'로 점철된 생활기록부를 보며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지독하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전교 1등을 해볼까”하는 황당한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학교 입학 1개월 후 첫 시험 발표가 났다. 그가 전교 1등이었다. '지대'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본다. 씻지를 못해 비듬 많고 때가 끼었던 그가 학교와 집에서 주목받기 시작한다. *

1980 광주민주화운동

1981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21살)

집안서 유일하게 대학에 입학한 '지대'는 친구의 부탁으로 6개월간 학생운동 일을 맡게 되는데, 그 6개월이 좀 문제였다. “너무 재미있”었던 것이다. 책에서 나오는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 민중, 사회주의와 분단의 이야기는 그가 초등학교 시절 거리를 배회하며 보고 들었던 이야기였고, 어릴 적 밤새워 듣고 또 들던 어른들의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전환'의 순간이 온다. 그에게 밥을 해준다는 상경한 어머니는 구로공단에서 한 달에 8만 6천 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 어떤 날은 밤샘 근무 후 아침에 들어와서 그에게 밥만 차려주고 다시 나갔다. 2주 만에 어머니는 쓰러졌다. 병원으로 어머니를 업고 달리면서 그는, “**우리 엄마를 잘 도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노동자들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결단처럼 생각했다. 그는 그 순간 “혁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세상이, 그가 규정하는 그 자신이, 그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차원의 존재론적인 변화였다. *

1992 소련해체

1995 WTO설립

1997 교토의정서 채택

1995-7 “인류의 고민은

무엇인가?”

(35-37살)

1992년 소련이 해체되며, 그가 20대를 바쳤던 운동이 저물었다. 목숨 걸고 했던 운동에서 남은 것은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한국에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혼자 남았구나**” 느끼던 **빠져린 막막함 속에서 전환은 일어난다. 1990년대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대'는 '인류는 뭘 고민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몇몇 운동 동료들과 맨땅에 헤딩하여 그는 마침내 1998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의 정부 관계자, 지식인, 시민단체들이 모이는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시민들이 어디에서 가장 위기에 빠질 수 있는가’였다. 한국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각각 열린 2년간의 포럼을 통해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그중에서도 한중일 항사와 연결되는 몽골의 사막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자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그가 이후 이십여 년을 중심 삼아온 주제고, 현장이 된다. *

2024, “살아남기 위해서”(64살)

어떻게 기후 활동을 지난 24년 간 이어올 수 있었는가의 질문에 대해,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살아남아야 이긴다”는 것은 그가 운동을 통해 얻게 된 전제였다. 단체를 설립한 후로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20대와 30대의 학습을 거치면서 그의 생존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의 생존과 연결되게 되었다. **생존해야 기후변화 대응을 이어갈 수 있고, 인류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고, 그가 혁명가로서 살 수 있게 된다.** *

결론

개인과 집단과 사회와 지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정체성 형성과정으로서의 기후변화 학습

지대에게 있어 기후변화 대응은 정체성으로 통합되어 삶으로서 이어지고 있다. '전교 1등'에서 '혁명가'에서 '기후 대응 활동가' 까지 세 번의 전환을 통한 '지대'의 정체성 형성은 인지 또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맥락과 실천, 관계가 과거와 현재라는 장기적인 시간 척도에서 얹힌 과정으로 조망되며, 전생애(life-long), 전사회(life-wide), 전층위(life-deep)에 걸쳐 일어난다.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이끌려가는” 학습

지대의 사례에서 볼 때, 베이트슨이 말한 추상적이고 무의식적인 전제와 습관이 변화하는 학습 내지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Bateson, 1972/2006:472)의 학습은 개인 단위만이 아니라 집단, 사회, 지구 단위와 연동되어 일어난다. 개인의 학습이 그가 사는 집단과 사회의 암묵적인 전제와 사고습관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집단과 사회 변화는 개인의 학습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된다. 이때 학습의 주도성은 인간 학습자 주체만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 관계, 객체들에 퍼져있다. 이렇게 볼 때, 기후변화에 “이끌려가는” 학습은 이미 사회-집단-개인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단위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으로 이해될 것인가? 혹은 집단, 사회 단위, 혹은 지구단위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기후변화 학습의 다양한 양상을 계속 탐색해가며 논의를 풍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Bateson, G.,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박대식), 책세상, 2006